

고규홍의 '나무 생각'



가장 오래된 철학, 신화와 전설

사람과 더불어 이 땅에서 오래 살아온 거개의 나무에는 그 나무의 생김새와 특징에 어울리는 전설이 함께 전하기 십상이다. 줄기 안에 천년 묵은 이무기가 산다고도 하고,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웅웅 거리며 울음을 운다고도 하며, 나뭇가지를 꺾으면 천벌을 받는다고도 한다. 흔하디 흔하게 전하는 큰 나무의 전설들이다.

경북 상주 상현리에는 4백 년 넘게 살아온 소나무가 있다. 이 나무에는 남다른 전설이 있다. 물론 나뭇가지를 꺾으면 천벌을 받는대거나 나무 줄기 안에 이무기가 산다는 평범한 전설은 이 나무에도 어김없이 담겼다. 나무 안에 사는 이무기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울음을 운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전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숲일을 뜯는 건 물론이고, 저절로 떨어진 솔잎을 주워 가도 천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것도 당대에 그치지 않고, 삼대에 걸쳐 지속된다는 조금은 살벌한 전설이다.

터무니없이 보이는 이 전설에는 나무를 지키기 위한 옛 사람들의 간절함과 슬기로우미 담겨 있다. 세상의 모든 나무

들은 누가 돌봐 주지 않아도 자신의 잎을 거름 삼아 스스로 자란다. 긴 세월 동안 이어 온 나무의 애육살이다.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서서히 썩은 잎은 나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거름이 된다.

소나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솔잎은 쉽게 썩지 않기 때문에 거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흐르기 전에 사람이 솔잎을 필요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나무를 땀감으로 이용하던 시절에는 그랬다. '솔갈비'라 부르며 사람들은 솔잎 달린 소나무 가지를 땀감의 쓰시개로 이용했다.

상주 상현리 소나무도 그런 점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딱히 나무를 위해 별다른 거름을 주기 어려웠던 시절에 소중한 거름이 되어야 할 솔잎을 사람들이 죄 주워가면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세심히 나무를 바라보면 마을 어른은 하나의 전설을 지어냈을 것이다. 우선 나무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도록 나무 안에 무서운 짐승인 이무기가 산다고 했다. 하지만 가난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

들은 한 끼의 밥, 하룻밤의 단잠을 위해 나무에 다가섰고, 솔잎을 주웠다. 그러자 전설은 각색됐다. 나무에서 떨어진 솔잎을 주워 가면 천벌을 받는다는 경고성 전설로 바뀌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나무를 찾아갔고, 제 한 몸이 천벌을 받는다 해도 도담도담 자라나는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등 따습게 재우기 위해 솔잎을 주워 갔다. 전설은 다시 또 각색됐다. 천벌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삼대에 걸쳐 이어진다는 터무니없는 각색이였다.

각색된 전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나무에 다가서기도, 나무에서 떨어진 솔잎을 주워 가기도 어려워졌다. 자신이 천벌을 받는 것만은 감수할 수 있다 해도,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에게까지 천벌을 물려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몇 차례의 각색을 거친 소나무의 전설은 마침내 완성형으로 마무리됐고, 나무는 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설의 힘으로 아름답고 유용하게 지켜졌다. 그리고 사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이 한 그루의 소나무는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나무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만

큼 당당하게 자랐다.

그러나 알맞은 건 한 그루의 큰 나무를 지키는 데에 큰 힘이 됐던 슬기로운 전설이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잊히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노인들이 흥미롭게 전해주던 전설이었건만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물론 첨단 과학의 시대에 우스개로 들리기 십상이 전설은 예전처럼 실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전설의 가치는 상실되고, 나무는 존재의 빛을 잃어간다.

상주 상현리에서처럼 은유와 상징으로 빛어낸 전설에는 언제나 삶의 이치가 담기게 마련이다. 전설과 신화를 가장 오래된 철학이라 하는 근거다. 나무에 얽힌 신화와 전설을 꼼꼼히 찾아내고 기록해 놓는 건 그래서 옛사람들의 철학을 복원하는 일이고, 신화를 잃어 가는 이 시대에 알맞은 삶의 철학을 더 견고하게 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내 눈에 맞는 시력 교정술



김재봉  
신세계안과 원장

지 않거나 각막 및 망막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수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시력 교정술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라식 수술로 대표되는 시력 교정 수술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라식 또는 라섹 수술 중에서도 아이디자인 라식, 아이 라식, 유티라식, 양막 라섹, 유티라섹을 비롯해 안내 렌즈 삽입술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시력 교정술은 각막의 두께와 근시의 정도에 따라 시술법이 달라진다. 각막이 두꺼운 경우는 라식 수술을, 각막이 얇으면 라섹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식과 라섹 수술이 모두 가능하면 먼저 직업과 수술 후 휴식 기간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근시 정도가 약할 때는 일반 라식·라섹이 좋다. 또한 라식과 라섹 수술이 모두 어려운 초고도 근시일 때는 안내 렌즈 삽입술이 대안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시력 교정술은 3D 스마일 수술로 안구 건조, 각막 혼탁 및 기타 시력 교정술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라식과 라섹의 장점만을 갖고 온 수술법이다. 일반적인 라식 수술

은 각막을 약 24mm 정도 절개해 수술하는 반면 스마일 수술은 1~2mm 정도의 최소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절개량을 줄일수록 각막의 신경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D 스마일 수술은 라식·라섹 수술에서 발생 가능했던 안구 건조증, 원추각막, 각막 혼탁 등의 부작용 발생률을 현저히 낮췄다. 특히 3D 스마일 수술은 최첨단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되는 수술법으로 의료진의 수술 경험과 기술력이 높을수록 뛰어난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수술 방법이 많아진 것은 개개인의 눈 특성에 따른 맞춤 수술을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시력 교정 수술도 개인의 눈 상태에 따른 맞춤 수술이 시도될 때 더 효과적인 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최근에 나온 시술법이 가장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다. 다만 최근의 시력 교정술은 각막의 손상이나 합병증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수술 후에 교정 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위해 전문의

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적인 시력 교정술을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눈의 성장 상태다. 안과에서는 대개 만 18세 이후에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람의 눈이 대개 만 18세를 기점으로 성장을 멈추는데, 시력 변화가 멈추고 최소 6개월 이후에 시력 교정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많은 근시나 난시는 보통 19~20세가 되면 진행을 멈추지만, 사람에 따라 만 18세 이후에도 계속 시력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안구의 성장이 불규칙한 시기에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면 수술 이후에도 계속 근시로 진행되어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면 콘택트렌즈나 안경 없이 좋은 시력을 되찾을 수 있지만 내 눈에 적합한 수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부작용으로 고생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시술 받기 전에 나에게 맞는 시력 교정술은 무엇인지, 전문의가 풍부한 수술 경험을 갖고 있는지,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수술 전 정밀 검사가 이뤄지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고

‘민중 자서전’과 ‘한국의 발견’을 돌아보며



김길남  
블로그 '김선생의 광주사랑' 운영자

은 특별 대우를 받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몇 회에 걸쳐서 연재되거나, 지나온 삶을 차분히 돌아보는 기사는 드물다. '민중 자서전'에 담겨있는 체온과 정성을 느끼기는 어렵다. 화제의 인물을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인물에 따라서는, '민중 자서전'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 주인공들이 몇 회에 걸쳐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지면을 제공한다 하면 신문과 잡지는 시대와 인물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역사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신문에서 역대 광주시장 회고록, 김남주와 함께 보낸 젊은 날, 들불 아학의 강학을, 양동시장에서 보낸 한 평생, 기아 타이거즈와 더불어 반세기 등의 기사를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스치고 지나가는 일회성의 기사가 아니라, 인물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읽어볼 수 있는 연재 기사로 만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나중에 이런 기사들이 신문사의 이름으로 출판된다면 우리 고장의 자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한국의 발견' 시리즈를 살펴보자. 이종환의 '택리지'나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조선 시대의 강행본을 제외

하면 한국의 여러 지역을 소개한 인문지리서가 거의 없다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발견' 열 권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이 아름답고도 알맹이가 토실토실한 보물을 담은 인문 지리서(지역 소개서)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보물'이 태어난 지 40년이다 되도록 소식이었다. 조금 실망스럽다.

요즘 신문이나 잡지에는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가 넘쳐난다. 지방 신문에서도 다른 나라의 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내 고향이 어떤 지역인가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기사는 드물다. 드론에서 내려 다보듯이 내 고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설명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편적인 지역 정보를 하나하나의 구술이라고 볼 때, 구술을 물어 나르는 기사는 차고 넘치는데, 구술을 하나의 실로 꿰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구술이 서 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격언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우리 고향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신시가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은 신문이나 잡지가 당연히 다루어야 할 뉴스이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지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해야 한다. '한국

의 발견' 시리즈를 엮어냈던 기자나 작가가 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해서 기술하고자 했던 정신을 되살렸으면 좋겠다.

목포, 여수, 해남, 강진 등등 지역을 차례차례 살피고 조망(眺望)하는 기사는 월 1회 정도 특집 기사로 다루면 좋겠다. 광주같이 큰 도시는 서구, 동구 등 구별로 나누어서 관찰해도 좋을 것이다.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모든 시군을 다 취재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미 다루었던 지역을 다시 순차적으로 취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독자들은 관심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요즘엔 시군 어디에나 지역신문이 있고 기자들이 있으니 이분들을 그 지역의 특파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지역을 전체적으로 살피다 보면 주먹구구식 개발을 막아내고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일도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이 변하고 쉽게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 고향의 신문과 잡지가 사람과 지역의 변화를 더 충실하게 기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이유이다.

社說

현대차 투자 확실히 이끌어 낼 마지막 기회다

최초 위기에 처했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 이어 광주시와 노동계 간 원탁회의 구성으로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인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광주시의 회에서 열린 광주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근로자들의 주거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공공 임대 주택과 행복 주택은 물론 체육 시설, 고용센터 등 간접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임금 이외에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 산업단지 내 도로 개설 문제도 당정 간 협의를 마쳤으며 '이제는 광주형 일자리를 매듭짓자'고 호소했다. 흥영표 원내대표도 "광주형 일자리에 드는 예산은 당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하겠으니 광주에서 합의만 해 달라"고 밝히는 등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지

원을 다잡했다.

광주시와 노동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양측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대차 투자 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탁회의는 현대차 투자 협상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면서, 노동계의 참여 방식을 결정하고 투자 요건 등을 확정하게 된다.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 도로 개설 문제도 당정 간 협의를 마쳤으며 '이제는 광주형 일자리를 매듭짓자'고 호소했다. 흥영표 원내대표도 "광주형 일자리에 드는 예산은 당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하겠으니 광주에서 합의만 해 달라"고 밝히는 등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지

원을 다잡했다.

광주시와 노동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양측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대차 투자 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탁회의는 현대차 투자 협상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면서, 노동계의 참여 방식을 결정하고 투자 요건 등을 확정하게 된다.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 도로 개설 문제도 당정 간 협의를 마쳤으며 '이제는 광주형 일자리를 매듭짓자'고 호소했다. 흥영표 원내대표도 "광주형 일자리에 드는 예산은 당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하겠으니 광주에서 합의만 해 달라"고 밝히는 등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지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 농산물 외면해서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별로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도시에는 국내 최대 공기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있는데, 이들 공공기관들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어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소속 김중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곳의 지역 농산물 구매액은 10억 2416만 원으로 국내 전체 공공기관(333곳)의 총 구매액 138억 원의 7.38%에 그쳤다. 특히 한국 KDN은 지난 1년 동안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이 전무했으며 한국전력거래소 200만 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62만 원, 사립대학교직업연구원공단 842만 원 등 구매

액이 1000만 원도 못 되는 곳이 5곳이나 됐다. 그나마 한국농어촌공사는 4억 7407만 원, 한국농수수산식품유통공사는 1억 858만 원 수준이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장이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역 농산물 구매 비율 의무 할당량이 있거나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 등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공공기관 지역 이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라도 공공기관들은 지역 농산물을 적극 구매해 상생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지역 농산물 구매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와 지금 40대 이상 국민 모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IMF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스매치'였다. 과거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1년 미만 또는 1~3개월의 단기 자금을 빌려 온 뒤, 기업들에 1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장기 대출을 해 주다가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이다. 이처럼 외환 자산과 부채가 규모나 만기 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미스매치라고 한다.

미스매치

패션계에서는 종래의 의의와 의의의 짝 맞춤, 다시 말해 흐트러진 옷차림에 의한 새로운 감각 표현이라는 의미로, 만화 애니메이션에서는 화면 간의 연결이 잘못된 경우, 농구에서는 키가 작은 선수가 키가 큰 선수에게 가드 당하게 되는 상황을 각각 미스매치라고 한다.

최근에는 일자리에서 미스매치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쓴다.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 불일치를 말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의 구인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광주는 특히 더 그렇다. 청년들의 눈높이는 이미 높아졌는데, 임금·복지 등

의 수준이 높은 대기업이 지역에는 없기 때문이다. 2017년 광주 중소기업들의 구인 인원은 9만 2194명에 달하고 있다. 2008년 구인 인원 3만 3499명에 비하면 2.75배나 급증했다.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 심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대기업의 이익 독점으로 중소기업은 갈수록 양상해졌고, 직원들에 대한 대우도 그만큼 차이가 커졌다는 의미다.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열악한 복지 시스템 가진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 차지만 지 오래다.

일자리만이 아니라 주거·교육·복지·의료 등 곳곳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거에서의 미스매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공공 임대 아파트는 1970년대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면서 인기가 없는 데다 공급마저 수월하지 못한 때문이다. 서비스 공급자가 정부인 공공 부문에서의 미스매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계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납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